



사순 제5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부활은 우리의 희망”

어수선한 세상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몸과 마음의 고생이 말도 안 되게 힘드시죠? 해서 복음 안의 마르타의 푸념이 저절로 나오는듯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될 터인데요.” 마치 주님의 침묵을 질책하는 듯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사순절 그 자체로 끝나지 않죠. 비록 무수한 죽음과 고난의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파스카, ‘부활’이라는 밝은 목표를 향해 아주 힘차게 정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순절은 희망의 부활절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사순절의 절제와 고통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며, 인생의 모든 역경 역시 ‘부활’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앙인, 이는 희망하는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또는 그것을 얻으려고 바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기에 희망이라는 말 자체에는 이미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희망’이 없다면 그는 이미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을 시작으로,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는 바가 완성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희망인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고통, 절망, 암흑, 집착을 뛰어 넘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곧 ‘포기’를 의미합니다. 포기가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포기를 많이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라자로야 나오너라!”고 외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외치시는 말씀으로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 변화된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썩어서 냄새나는 자신의 그릇된 삶의 자리를 벗어나 마음을 열고 나설 때 거기에 신선한 바람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쳐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이기심, 욕심과 집착에 묻혀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 다시 말해 하느님은 자비하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죄(죽음, 욕심)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살(생명)이 돌아나게 해 주십니다. 해서 이번 사순절의 특별함은 더 큰 희망으로 설레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욕심과 아집의 무덤을 박차고 나설 때 거기에는 신선한 바람과 삶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다 함께 죽음이라는 욕망과 이기심과 악습의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러 나가도록 합시다.



김국진 가우덴시오 신부 | 봉곡동 본당 주임



제자들

진해 카리타스 봉사단



진해 카리타스 봉사단은 2002년에 '진해 기술 봉사단'이란 명칭으로 시작된 봉사단체입니다. 회원들은(초대 박우훈 베드로 단장, 2대 박성호 베드로 단장, 현재 김명철 아우구스티노 단장) 한 달에 하루 시간을 내어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진해시 120기동대와 연결하여 긴급 재난 구호, 집수리, 환경개선 등을 위주로 봉사하였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봉사단의 통합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몇 년간은 재능 기부만으로 이어오다가 2016년 '창원시 자원 봉사 우수 프로그램'에 당선되어 시 지원 80%, 봉사단 회비 20%로 순풍에 날개를 단 배처럼 이제는 큰 어려움 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마산교구 구호 봉사단을 마산교구 카리타스 봉사단으로 개명하고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마산가톨릭교육관, 명례성지, 복지관 등 교회 기관들은 물론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집, 청소년 시설의 환경 개선, 결손 가정의 주거 시설 개선, 장애우의 환경 개선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집수리(전기, 수도, 조명, 도배, 장판 등)부터, 노후 시설 보수와 조경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한두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성탄을 앞



명례성지 잔디식재 작업



태백동 장애우 집 도배장판과 조명

둔 어느 해 몹시 추운 날씨에 독거 어르신(여좌동 거주)의 집이 화재로 인해서 지붕이 다 타버려 급히 봉사단을 소집하여 지붕을 새로 입히고 도배를 다시 하여 무사히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 연신 고개를 숙이시며 “고맙다 고맙다. 젊은이들이 아니면 이 추운 겨울에 내가 어디 가서 두 다리 뻗고 자겠노?” 하시며 두 손을 놓지 않으시던 그 모습에 성탄에 선물을 안겨준 산타 할아버지라도 된 양, 같이 기뻐하며 어르신 손을 잡고 “어르신 사시다가 불편한 것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돌아올 때는 뿌듯함에 한 겨울 세찬 바람도 추운 줄 몰랐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몹시 더운 여름 마산가톨릭교육관 성모님 동산 부근에 나무들이 마구 자라서 손 댈 수 없을 정도라는 연락에 우리 봉사단원들의 수고로 동산 부근의 나무가지를 전지하며 더벅 머리 총각 같은 동산을 말쑥한 새 신랑같이 다듬어 놓고 동산에 계신 성모님을 뵙자니 산위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그날의 수고를 난포리 앞바다로 다 휘몰아쳐 날아가는 것같이 시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전기, 수도 등이 문제가 생겨 방과후 아이돌봄에 지장이 있다는 연락에 전기도 고쳐 주고 수도도 손질해 주고...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담당 자매님이 뚜껑을 덮어 달라 요청 했습니다. 가서 보니 나무판자로 대충 덮어 놓아 장난기 많은 아이들이 열어 그 속에 빠지기도 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질하여 아이들이 뚜껑을 열 수 없도록 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시설물이라도 봉사단원들의 섬세함이 꼭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여 주위의 건재상의 도움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봉사를 하니 자녀들이 어린 가정의 단원들에게는 주말에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시어 실수 없이 작업하고 성모님의 보살핌으로 단원들 모두 작은 사고도 없이 작업할 수 있게 해 달라’ 기도드리며 진해 카리타스 봉사단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달려가서 봉사할 것이라고 오늘도 기도로 봉헌해 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010·3592·1536(김명철), 010·5919·877(배태균)로 연락주시시오.



학의동 독거 어르신 옥상방수작업(중앙동성당 교우)

좋은 삶으로의 초대(1)

최성욱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네브래스카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합니다.”

은사님의 책 *The Good Life*(『좋은 삶으로의 초대』(2018)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됨)의 첫 글귀입니다. 저자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에서 네브래스카는 아주 먼 곳입니다. 먼 곳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만큼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이 있을까요? 『좋은 삶으로의 초대』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삶,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이 어떤 삶인지 안내한 책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체험이 있어야 좋은 삶이 가능하다고 소개합니다. ‘사랑받은 체험의 뿌리’가 행복한 삶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은 근원적인 뿌리에서부터 하느님과 만남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만남을 뜻하는 영성(spirituality)과 사랑받은 체험에 대한 응답으로서 도덕성(morality)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책의 부제도 ‘그리스도교 영성과 도덕성의 접점’입니다.

“영성 없는 도덕성은 뿌리가 없고, 도덕성 없는 영성은 구체적이지 않다.”

저자의 다른 저서,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2015)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느님과 벗 되는 삶으로서 영성생활이 가능한 까닭은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사랑에 목말라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충만함을 갈망하는 것 같지만, 그 질문의 근원을 되짚어 보면,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생활은 ‘하느님께 사랑받은 체험의 뿌리’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성생활은 도덕적 실천, 곧 이웃사랑으로 구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일도 훨씬 쉬워집니다.”

『좋은 삶으로의 초대』는 행복한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랜 명제에서 시작합니다. 자극하는 친구도 필요하고, 격려하는 친구도 필요하며,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함께 웃어주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삶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만 살았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틀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꼭 좋은 삶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이란, 하느님과 벗 되고 이웃과 벗 되는 삶입니다. 좋은 삶이 하느님과 벗 되는 삶을 뜻하는 한, 도덕성과 영성은 함께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이고, 어떤 사람이 될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순간 어떤 행동들을 선택해야할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이자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좋은 삶이 곧, 은혜로운 삶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다.”

「좋은 삶으로의 초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특징(거룩한 존재, 사회적 존재)이 잘 반영되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좋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하느님 모상으로 인간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은 ‘거룩함’과 ‘사회적 존재’입니다. 첫째, 인간이 자신의 성취와 무관하게 존엄한 까닭은 우리 안에 하느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인간이 이웃에게 자선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까닭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인 ‘사회적 특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굴라(R. Gula)는 우리 인간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사회적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가지 특징은 ‘겸손’과 ‘감사’의 덕이라는 형태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과 감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하여 하느님께 솔직한 사람의 덕이다.”

겸손은 이해하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받은 은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인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삽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능력과 한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떠나보내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기꺼이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덕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 병약해져 의존하는 상황을 두고 존엄성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에 기대고 그들의 돌봄에 의탁하는 체험이야말로 좋은 삶과 좋은 죽음을 위해 필요한 은총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축복으로 받은 선물이 나눔을 위해 주어졌음을 수용하는 겸손한 사람이 곧 이어 체험하게 되는 덕목”입니다. 주어진 선물은 자랑하기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는 사람(tongere; think)의 덕목이 ‘감사’(thanksgiving)의 덕인 것입니다. 열 명의 나환우가 치유를 받았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났는지 ‘기억’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되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렸듯이, 감사의 덕은 진정 기억하는 자의 덕목입니다. 감사와 찬미드림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1) 겸손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땅으로 내려가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덕목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은 떠나보내기 힘들고, 한계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도움을 청하기 힘들니까? 여러분이 과도한 통제와 독립의 욕구를 느끼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2)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은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지난 1년간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 카드를 작성해 봅시다. 그것을 꼭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감사 카드를 적어보는 일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지도

전동혁 베드로 신부 / 신시내티 한인성당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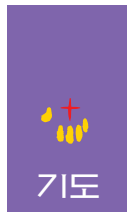


현대에 이르러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잠들기 전 성경을 읽는 것이다. 책장을 펼치자마자 바로 잠이 쏟아질 것이다. 너는 이를 믿느냐? 씩씩한 농담이다.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 먹을 때가 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체적 그림이 들어오지 않는다. 성경을 읽을 때 지리적인 위치를 함께 참고하면 의외로 성경이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다. 하여 시청각 교육이 병행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적절한 도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서와함께'에서 간행된 '성경지도' 책이다.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한눈에 쏙 들어오게끔 만들었다. 무엇보다 지도가 시대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하여 보기도 쉽다. 책장을 넘길 것도 없다. 그냥 성경 밑에 펼쳐 놓기만 하면 된다. 이 지도책은 영어 단어를 찾듯이 왔다갔다 할 필요도 없다. 그저 눈알만 움직이면 된다. 얼마나 좋은가? 물론 구글 검색을 하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지런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숨쉬기도 귀찮은 나 같은 사람은 그럴 바에야 책을 덮고 만다. 성경을 알고는 싶는데 시간이 없거나 게으른 자에게는 완전 딱이다. 또 이 지도의 좋은 점은 쉽게 기억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중요한 도시들의 위치와 그 도시의 역사, 게다가 신앙적인 의미까지 아울러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기 성조들의 발자취를 비롯하여 출애굽의 경로, 그리고 가나안 정복사업과 12부족의 땅 배분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사울과 다윗의 왕국, 이후 전개되는 세계역사의 판도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다. 말하자면 성경의 안내서인 셈이다.

믿기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 지도책을 구입해서 한 번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란다. 나는 책 판매원이 아니다. 성경을 알고, 읽고 싶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하여 이를 소개하는 것이다. 약속컨대 '의외로' 성경을 흥미롭게 볼 수 있다. 성경이 쏙쏙 들어온다. 그러면 성지순례를 갔다 온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아니 성지순례를 갈 필요가 없다.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는 저에게 고맙지 아니한가?

다른 이야기로 마칠까 한다. 두꺼운 소설책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개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책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책을 읽고는 싶는데 등장 인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여 헷갈려 하는 사람이다. 전자는 이해할 수 있고, 후자는 도와줄 수 있다. 전자는 영화를 보면 되고, 후자는 기억을 보완하면 된다. 후자, 예컨대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분들은 내용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다시 책장을 넘겨야 하는데 그때 책장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까지 덮어버리게 된다. 하여 특별히 이분들을 돕기 위하여 이 지도책을 소개해 본 것이다. 모르는 지명이 나오면 잠시 쉴 겸, 이 지도책을 보시라. 그러면 사건이 왜 그렇게 전개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로 지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구글에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지도를 만들었겠는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도우미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은 청년들이 성경 읽기에 맞들이도록 인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고 이해함으로써, 삶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피정은 최대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성경 이야기’와 ‘통독’ 그리고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성경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짧은 강의입니다.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은 참가 횟수에 제약이 없습

니다. 일 년에 세 차례 있는 피정에 전부 참가해도 좋고, 한 번만 참가해도 좋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책과는 달리, 진리이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때마다 나에게 새로운 신앙의 눈과 힘이 됩니다. 매년 참가하셔도 새로운 피정이 바로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핑계로 성경과 가까이하지 않던 제가 성경통독피정을 잘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피정이 진행되면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통독 시간 전 강의에서 읽어야 할 성경의 배경 지식과 생각할 주제를 신부님께서 알려주셔서 통독할 때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리 내어 성경을 읽는 것은 음절음절 신경 써서 읽어야 해서 성경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읽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통독 후 와닿는 성경 구절에 대해 조원들과 나눔을 하는 시간이 피정 중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피정 안에서 처음 알게 된 분들이었지만 스스로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지향하는 것이 다름에도 성경 말씀은 저희에게 위로와 반성,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눔을 진행할수록 처음에 가졌던 어색함이 나 성경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또한 봉사자분들께서 나눔 시간에 보충 설명도 해주시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박 2일 피정시간 동안 계획한 성경을 다 읽고 나눔을 마친 후에는 단지 읽기만 했을 뿐인데 뿌듯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꾸준히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로고스 성경통독피정도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문나희 힐라리아(진동)

2020년도 일정 안내

일시: 7월 18일(토)~19일(주일), 10월 17일(토)~18일(주일)

장소: 성혈 영성의 집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제 1 독 서	에제 37,12ㄹ-14
화 답 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제 2 독 서	로마 8,8-11
복 음	요한 11,1-45

주일 진례